이민·난민 문제 다룬 프랑스 영화 만난다

16~18일 광주극장서 제1회 광주프랑코포니영화제

전남대 불문과와 공동 주최 '러브 어페어…' 등 5편

광주극장과 전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광주프랑코포니영화제가 16일부터 18일까지 광주극장에서 개최된다.

프랑스어권 개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광주프랑코포니영화제는 글로벌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문화다양성 의식과 국경을 넘어선 연대와 소통 증진을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행사로 기획됐다.

16일(오후 7시) 개막작으로 선정된 '러브 어페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2020)은 제46회 세자르시상식에서 13개 부문 최다 노미네이트됐으며, 자유분방한 프랑스식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는 영화다.

나머지 네 편은 ▲레바논을 배경으로 12살 소년이 부모를 고소하고 온 세상의 관심과 응원을 받게되며 벌어지는 드라마 '가버나움' ▲그리스 신화에서 오이디푸스 왕의 딸인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현대의 캐나다 몬트리올로 가져와 난민 문제 등을 엮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안티고네' ▲평범한 무슬림 소년이었지만 종교 지도자 이맘에게 세뇌당한 후 어릴 적부터 자신을 가르친 선생님을 해칠 계획을 세우는 소년 아메드의 이야기를 그린 현실주의 드라마 '소년 아메드' ▲프랑스 혁명을 다룬 '레 미제라블' 이후 15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분노의 노래를 몽페르메유에 전근 온 경감 스테판과 뜻밖의 사건에 몰린 소년 이사를 통해 보여주는 작품 '레 미제라블'이다.

이들 작품은 공통적으로 이민 혹은 난민 문제를 다룬 영화들로 프랑스어권의 다양한 문화를 알아가는 동시에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첨예한 동시대 지구촌의 문제에 대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네토크가 17일(오후 7시) '소년 아메드' 상영 후 정지혜 영화평론가, 18일(오후 4시) '레 미제라블' 상영후 허남웅 영화평론가의 토크로 진행된다.

이번 영화제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단의 후원으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영화제 트레일러 제작, 홍보물 디자인, 프로그래밍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관람료는 5,000원. /이연수 기자

'러브 어페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가버나움'

신화·성경 속 이야기 독특한 서사로

갤러리리채 청년작가 하승완 전시회 지원

갤러리리채의 청년 작가 지원전 두번째 작가인 하승완 작가의 전시가 오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마련된다.

갤러리리채는 진아리채 건설회사의 지원으로 1년에 3명의 청년작가를 지원한다. 작가당 300만원의 창작지원금과 전시회를 열어 창작의욕에 힘을 실어주고, 기업은 젊은 예술가를 지원함으로써 메세나 운동의 모범이 되고 있다.

첫 번째 지원 작가인 노은영에 이어 두 번째 작가인 하승완은 현재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로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 작가는 인간과 세계를 기반으로 작성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룬다. 그것은 신화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비롯해 동시대 매스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이야기들이 포함된다.

주로 과학서적이나 역사서적에서 본 내용을 리서치를 통해 더욱 확장시켜 작업에 대한 영감을 얻는다는 하 작가의 작업은 신화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차용해 자신만의 서사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한 번쯤 의심하고, 본질적인 것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작업은 지나온 인류의 역사, 진화,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이 만들어낸 국가, 사회라는 규범, 우리 사회를 규정짓고 있는 틀, 체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어 '정의'라는 것도 입장을 바꿔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권력'과 '힘'도 누가 어떻게 쥐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다.

'Crying Lazarus'

그의 작업에서 '서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가 만들어내는 '회화적 이미지'다. 그의 화면에서는 강렬한 동적인 움직임과 암갈색의 색채, 판타지스러운 분위기가 뿜어져 나온다.

과거의 이야기, 이미지, 판타지, 현실세계를 기반으로 작업을 만들어냄으로써 회화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그가 작업을 하는 이유다.

이번 전시에는 '성전정화', 'Crying Lazarus' 등 15점을 출품한다.

/이연수 기자

'미리보는 광주국제아트페어'

동곡미술관 16일부터 작가 32인 작품 전시

보문복지재단 동곡미술관은 미술품을 사고 파는 광주 대표 미술장터인 '아트광주'에 참여하는 작가 32인의 72점 작품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프리뷰 전시를 오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개최한다.

동곡미술관 전시장에서 열리는 아트광주21 프리뷰 전시에서는 '점과 선의 무지개를 만나다'를 주제로 서양화 46점, 한국화 16점, 조각·미디어 10점 등 총 72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참여작가는 강일호, 고명인, 김영화, 김종일, 박성완, 신호재, 이두환, 이이남, 조현수, 최순임, 한희원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이다. 점과 선을 잇고 독창적인 빛깔로 미술의 무지개를 띄운 32인의 작품을 감상하며 '나만을 위한 미술작품, 미술의 기쁨'을 찾아볼 수 있는 전시다.

마음에 드는 작품을 직접 사서 소장하는 컬렉팅 문화를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누구나 방문해 참여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부대행사로 아트광주21 윤익 총감독의 강의가 16일 오후 6시, 동곡미술관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두환 작 '관조'

'아트테크와 미술품 수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유선(062-945-0070)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전시관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입장료는 무료다.

/이연수 기자

ACC '어린이 손글씨 공모전'

다음달 12일까지…우수작 서체로 개발

내가 쓴 글씨가 세계적인 복합문화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글꼴로 개발되는 기회가 열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0월 12일까지 전국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한 'ACC 어린이 손글씨 공모전'을 개최한다.

ACC 유튜브에서 'ACC 아시아 이야기 그림책' 영상을 감상한 뒤 ACC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자신의 손글씨로 감상평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총 상금은 200만원으로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1명, 50만원), 장려상(1명, 30만원), 참가상(20명, 문화상품권 1만원)을 선정한다. 우수작 3명에게는 시상식을 통해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 발표는 10월 27일이다.

특히 우수작으로 선정된 손글씨는 'ACC 글꼴'로 제작해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ACC는 손글씨 활용성 등을 감안해 ▲심미성 ▲독창성 ▲완성도 ▲개발 가능성을 기준으로 수상작을 가린다.

/이연수 기자